

## 법정사 항일운동과 지역주민의 참여

김 창 민\*

### 1. 머리글

일제시대에 일어난 대표적인 항일운동의 하나인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와 성격에 대한 규명이 미흡하였다. 그 원인은 이 운동이 제주도라는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서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적었다는 점, '보천교의 난'이라고 알려짐으로써 보천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결부되었다는 점, 그리고 가담자의 후손들이 실체 규명을 요구할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김창민 2002, 임해봉 1995 등 참고). 최근 서귀포시의 후원과 항일 유적지 성역화를 모색하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의 실체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된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안후상 1993, 1995; 임해봉 1995; 조성운 2002; 김정인 2002; 박찬식 2002 등).

이런 일련의 연구들은 이 항일운동의 역사적 과정, 주도세력 논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는 몇몇의 관련 기록들이 발굴되면서 활기를 띠고 있으나 여전히 문헌 연구 및 사료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한된 사료와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적 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항일운동의 내용은 빈약하게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자료의 한계로 발전적인 논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도세력 논쟁은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항일운동의 성격을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민족운동사의 맥락에서 규명되어야 할 항일운동이 특정 종교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이 운동의 의의

\* 전주대학교 교수

가 확대될 수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연구가 필요하다.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한 구전과 전승은 문헌자료와 또 다른 입장에서 역사적 실체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공식 자료에 담겨지지 않은 풍부한 사실들이 주민들의 기억 속에 담겨 있으며, 이는 기록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개인들에 대한 기억이나 사건의 전개과정 등에 대한 기억은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를 통해 역사적 실체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된다.

현지연구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 국가는 공식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주민들은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다. 이 내부자의 의미 부여는 역사적 사건이 하나의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역사는 복수(histories)이며 이들은 서로 경쟁한다. 즉, 역사는 과거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기억이지만 민중들은 국가적 기억과는 다른 형태의 집합적 기억을 가지고 있다(Bourguet et al 1990). 국가가 망각하기를 요구한 부분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승함으로써 민중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구성한다. 이 대안적으로 구성된 역사는 민중들의 자기 인식이며 국가의 공식적 역사에 대한 대안적 역사로 작용한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단일한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 다양한 역사와 기억들이 경쟁함으로써 역사는 역동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기억을 통해 역사적 사실들을 재구성하며, 이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연구의 대상은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송치된 하원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원은 지리적으로 법정사와 가장 가까운 마을로서 법정사 항일운동의 중심마을이었으며, 이 사건에 대한 구전과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는 마을이었다. 현지연구를 통해 하원리 가담자들의 인적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사건의 경위에 대한 기억과 사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내부자의 인식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 2. 하원마을

하원은 중문에서 동쪽으로 2km, 서귀포에서 서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자연 마을로서 일주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한라산의 남쪽 사록에 위치한 하원마을은 기후가 온화하고 인근에 많은 수원을 가지고 있어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산남 일대의 주요한 마을 중 하나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1999년 기준으로 하원의 가구수는 421세대 1502명으로 인근의 월평, 회수에 비해 마을의 규모가 월등히 크다.

하원은 넓은 중산간 지대를 배후에 가지고 있어서 일찍부터 밭농사를 많이 하였다. 밀감 농사 이전까지 하원은 경지면적이 넓어 경제적으로도 인근 마을에 비해 부유한 편이었다. 하원의 중산간 지대는 한림 방면에서 서귀포 및 성읍 방향으로 넘어가는 산간도로의 요충지였으며, 이 이동 경로를 따라 화전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또한 하원마을은 배후에 넓은 산록지대를 가지고 있어서 고려시대 이후 중요한 목마장이었다. 조선시대 국마를 양성하던 8소장이 하원 일대였으며, 지금도 수백 가구가 마을공동목장을 이용하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다<sup>1)</sup>. 즉, 하원의 중산간 일대에는 인구의 밀도는 높지 않아도 화전농, 목축인 등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면서 생활을 하던 지역이었으며 현재도 표고버섯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마을 사람들의 중요한 생활무대가 되고 있다.

하원(河源)이란 마을 이름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1850년까지 하원은 下院이라고 하다가 1851년부터 河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하원마을회 1999:125). 하원(下院)이라는 마을 명칭의 원(院)은 역참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하원이 역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정확한 원의 지점은 현재 알 수 없다<sup>2)</sup>. 다만 하원은 그 지리적 위치상 대정현과 정의현 사이에 있는 역참으로서 기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하원사람들은 이 원을 달리 해석하고 있다. 즉, 원이 역참의 기능을 하였다

- 
- 1) 1994년 기준 공동목장 조합원은 232명, 우마 사육 가구는 151가구였다(서귀포시 통계연보 1994).
  - 2) 법화사를 법화원이라고도 하였는데, 이 점에서 법화사를 원의 위치로 짐작하는 견해도 있다.

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하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상원, 중원, 하원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이들은 우선 법화사를 下院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법정사를 中院, 존자암을 上院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이 설명의 정확성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설명 방식은 하원사람들이 법화사와 법정사, 그리고 존자암을 연결시켜 하나의 세트(set)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법정사에 사람들이 상주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들은 법화사 스님들이 계절을 따라 법정사, 존자암으로 이동하면서 수도하였다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즉, 하원 지경 안에 있는 존자암과 법정사는 유서 깊은 법화사와 연결되어 하나의 묶음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법화사라는 큰 절의 후광에 힘입어 그 존재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원은 불교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下院이 河源으로 변경된 것은 하원이 더 이상 역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호적중초에 나타난 주민들의 직역이나 대정 향교에 출입한 사람들의 명단 등을 볼 때 이후 하원은 양반마을, 학문하는 마을의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하원에서는 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대정향교에서도 훈장을 역임한 사람이 4명, 대정향교의 전교직을 맡은 사람이 3명 있었으며, 해방 이후 조직된 유도회에서도 중문 지회장을 5명, 향교 장의를 12명이나 맡을 정도였다. 근래까지도 유도회 제주도지부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다수 있으며, 현재 유도회원만도 100명 정도 될 정도로 하원은 전통적으로 유학을 많이 하였다. 하원에는 조선시대 이래 서당이 있었으며 이 서당에 훈장이나 선생을 모셔서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한다. 하원의 서당에는 하원마을 사람들 뿐 아니라 인근의 월평, 도순, 강정 사람까지도 찾아와 한학을 배웠다. 그 결과 현재도 하원은 산남 일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하원사람을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원 양반'이라고 한다.

하원마을에서 법화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다. 법화사는 법화사상에 기초해 창건된 것으로 보이며, 장보고 연구가들은 중국에 법화원을 세운 장보고가 제주도에 법화사를 세웠을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법화사는 통일신라 후대에 창건된 것이 된다. 그러나 일련의 발굴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화사는 몽골의 지배 이후인 고려 후대에 창건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조선시대에 법화사는 수정사와 함께 제주도를 대표하는 사찰이었다. 태종실록에 의하면 당시 법화사에는 노비가 280인이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 법화사 인근은 거의 대부분 법화사에 속한 토지였을 것이며 그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로 마을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태종 6년에 법화사의 노비 중 30인만 제외하고는 모두 방면하여 둔전을 경작하거나 군역에 종사하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당시 법화사로부터 방면된 사람들도 인근에 모여 마을을 형성하는데 일조 하였다. 즉, 하원마을의 형성은 법화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하원마을은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하여 매우 복잡하고 중첩적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법정사는 중산간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넓은 중산간 지대를 배경으로 화전과 목축을 하던 하원, 월평사람들을 비롯한 인근 중문 일대의 사람들을 규합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하원마을이 전통적으로 법화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법화사, 법정사, 존자암은 일련의 연관성 위에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법정사를 중심으로 발생한 무오년 항일운동에 하원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학을 하였고 양반마을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던 하원사람들은 외세의 침입과 일제의 침탈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하였다는 점도 이들이 항일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 3. 법정사 항일운동과 하원사람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검찰에 기소된 66명 중 하원사람은 총 20명으로서 마을 단위로 보면 가장 많은 수의 사람이 기소되었다. 이는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숫자상으로 하원 사람들의 참여가 가장 많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검찰 송치자 중 30%가 하원사람들이었다는 것은 하원이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중심된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법정사 항일운동이 진압되고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수사본부가 하원에 설치되었으며, 항일운동의 전개과정과 관련 인물에 대한 구전이 하원에 가장 풍부

하게 남아있는 것도 이 항일운동에서 하원이 차지하는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하원사람들은 인근의 도순이나 월평사람들에 비해 형량에서는 비교적 낮은 형을 받았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원사람 중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5명이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1년 또는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sup>3)</sup>. 징역형만 두고 본다면 김연일이나 다른 주도자들이 10년에서 3년 정도의 형을 받은 것과 비교해 형량이 많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반면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9명으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다. 도순 사람들이 대부분 징역형을 받았고, 월평사람들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5명씩 받았음에 비해 하원사람들이 받은 형량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었다. 이는 하원사람들이 법정사 항일운동에 수적으로는 다수가 참여하였지만 역할의 측면에서 보면 주도적인 위치에는 있지 않았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표1> 형량별 하원사람의 비율

형량	징역	벌금형	불기소	기타	계
총인원	31	15	18	2	66
하원사람 수	5	9	6	0	20
하원사람의 비	16.1	60.0	33.3	0	30.3

하원사람들이 이 운동에 많이 가담하게 된 것은 운동의 전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원사람들 중에는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항일운동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지만 법정사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서귀포시를 향하다가 일본 경찰이 저지를 받고 중문 파출소로 방향을 전환한 과정에서 개입한 경우가 많았다. 서귀포 방면에서 경찰의 저지를 받은 시위대는 하원과 도순 지방을 지나 중문으로 향하였으며, 이 때 하원사람들 중에는 시위 주도자들의 선동에 의해 시위대에 가담한 자가 많았던 것이다.

3) 주소가 하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 중 김상산이 6년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는 본적지가 제주시 외도동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 법정사에 기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원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하원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4.7세였다. 이를 월평 및 도순과 비교해보면 월평과는 비슷하였으나 도순사람들에 비해서는 평균연령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월평의 가담자는 평균 34.5세였으며, 도순의 가담자는 평균연령이 42.2세로서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도순사람들이 형을 가장 무겁게 받았으며, 동시에 연령도 가장 높았다는 것은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도순사람들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한다<sup>4)</sup>.

형사기록부나 수형자명부에 주소 또는 본적이 하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김상산(6년), 이승빈(1년), 오병윤(1년), 이달생(1년), 이춘삼(6개월), 양봉(30원), 원인수(30원), 김인송(30원), 지축생(30원), 지갑생(30원), 오인식(30원), 강무봉(30원), 강태하(30원), 이봉규(30원), 강기추(불기소), 현채천(불기소), 원성춘(불기소), 김병일(불기소), 김인호(불기소), 고기동(불기소) 등 20명이다.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은 모두 5명이다. 이 중 김상산<sup>5)</sup>은 본적은 제주시 외도로 되어 있고 주소는 하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승려였으며 법정사 항일운동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이었다. 이승빈은 중문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나 처가가 하원이어서 하원에서도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sup>6)</sup>. 그는 당시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기록부 등에 오병윤(吳秉允)이라고 기재된 사람은 실제 오병용(吳秉用)이라고 한다. 그는 마을에 살고 있는 오인식씨와 가까운 친족으로 알려져 있다. 이달생은 하원에서 '이 장의'로 통해진 인물로서 통상 '달생이 장의'라고 불렸던 인물이다. 그는 대정 향교의 장의 출신으로 유학에도 밝았지만 선

4) 이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도 조망될 수 있다. 검찰 기소자 중 주소나 본적지를 도순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총 15명이다. 그리고 이 중 주소지의 지번을 법정사로 하고 있는 사람이 8명이었다. 법정사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이들 8명은 법정사에서 살고 있던 종교인이라고 유추된다. 실제 이들의 직업은 무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5명, 주지, 일용, 하인이 각 1명씩이었다. 이들 외에 직업이 무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강창규(징역 8년)와 김연일과 함께 영일에서 온 김인수(징역 3년) 2명 밖에 없다. 나머지 대부분은 직업을 농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들만 직업이 무직 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이들이 법정사를 근거로 하고 있던 종교인들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5) 김상언이라고도 한다.

6) 하원과 회수 사이에 있는 '동수'라는 지역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교에도 열심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자식이 없어서 양자를 들었으며 현재 양손자에 해당되는 후손이 중문에 거주하고 있다. 이춘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별금형을 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별금을 납부하지 못해 30일간 노역살이를 하였다고 한다. 이 중 양봉과 이봉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원인수는 하원에 거주하였던 인물이나 현재 후손이 없다. 하원에는 원씨들이 다수 살고 있으며 그 일족으로 보인다. 김인송은 현재 대포에 거주하고 있는 김춘자의 아버지로 알려지고 있다. 지축생과 지갑생은 현재 하원에 거주하고 있는 지씨의 일족이며, 지축생은 후손이 없으나 지갑생은 지봉남의 조부이다. 오인식은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두었으나 딸은 있었다고 한다. 강무봉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실제 강순봉이었다. 순(舜)자와 무(舞)가 비슷하여 잘못 읽힌 것으로 생각된다. 강순봉은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하원의 주요 성씨 중 하나인 강씨의 일족이다. 그는 자식이 없어 양자를 두었으나 후손들이 잘 되지는 못하였다. 강태하는 중문 조합장을 지낸 강문규의 선친이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6명 중 강기추는 강주하의 증조부다. 현재친은 당시 마을의 일을 보던 사람으로서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 마을을 떠났으며 후손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원성춘은 후손들이 하원에 거주하고 있으며, 김인호는 이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자손들이 육지에 나가서 살고 있고 마을에는 손자인 김택춘이 거주하고 있다. 그와 강태하는 처남-매부간이었다. 고기동은 하원사람이었으며 그 아들이 현재 하원에 살고 있다. 월평에서 이장을 지내고 현재 중문농협 감사인 고송길이가 그의 조카이다. 고기동은 그의 동생과 함께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워 유학에 매우 밝았다고 한다<sup>7)</sup>. 그는 후에 마을 향교 자리에 서당을 차리고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으며 호는 오정(梧庭)이라고 하였다. 그는 서당에서 후학을 양성하던 중 일시 일본으로 건너가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다시 마을에 돌아온 후에도 훈장 역할을 하였다. 그는 마을의 대표적인 유학자이며 선생이었다. 김병일은 본적은 영남, 주

7) 하원은 한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정향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일제가 대정향교를 폐쇄하자 복구운동을 펼친 것도 하원사람들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 전후에 하원에서 한학을 하고 학생을 가르치던 대표적인 인물은 하정선생(河亭先生)이라고 알려진 김의종이었다.



소는 하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아직 없다.

하원마을 출신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인해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은 하원마을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유학을 하여 학식이 있거나 대정 향교 출입을 자주 하던 행세하던 사람들이었으며, 경제적으로도 비교적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었다. 또한 친족관계에서도 하원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성씨의 일족이었다. 이들은 마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마을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법정사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하였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담할 수 있었다. 반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기층민중들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지역 내 유력 인사의 주도와 기층민중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기억과 인식

하원사람들은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풍부한 구전과 기억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구전을 통해 지금도 법정사 항일운동의 전 과정을 생생하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관련된 인물에 대한 기억도 재생산하고 있다.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된 장소나 사건의 성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하원사람들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핵심인물인 김연일에 대해서도 많은 구전을 가지고 있으며, 비범한 행동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영웅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김연일을 독립운동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스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가 법정사에 머무른 것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미 선도교는 불법단체로 간주되었지만 불교는 합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원을 숨기고 동지를 규합하는 수단으로 법정사를 선택하여 승려처럼 행세한 것뿐이라고 인식한다. 그는 육지에서부터 독립운동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제주도로 왔으며, 이미 기미년 독립운동 단체와 연관되어 있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가 법정사 항일운동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33인을 대표로 세운 것도 기미년 독립운동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인

식되며, 법정사 항일운동이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가 시기를 잘못 알아 1년 먼저 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 담론은 하원사람들이 김연일을 영웅적 독립운동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김연일에 대한 영웅화는 그가 체포되는 과정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항일운동 이후 그는 '가대약'이라고 하는 오름 아래의 농가에 은신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일기를 보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였는데, 그가 외출하면 일경이 찾아오고, 집에 머무르는 날에는 어떤 일인지 일경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천기를 읽는 그의 능력으로 김연일은 상당 기간 동안 체포되지 않고 은신할 수 있었으며, 마을 출입도 비교적 자유롭게 하였다고 한다. 이런 담론들은 그의 능력을 신비화함으로써 역사적 영웅으로 승격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연일은 외모에서도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는 법정사에서 생활하였지만 승려와는 달리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길렀으며 늘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녔다고 한다. 그의 행동은 전형적인 양반의 품모였으며 하원사람들은 '도사 같은 사람'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행동으로 양풍과 왜색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양풍과 왜색을 배격하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중문 일대에서 설교하였다고 한다. 당시 제주도는 이재수의 난으로 천주교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있었으며 또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로 인해 일본에 대한 감정도 악화되어 있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양풍과 왜색을 배척해야 한다는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의 제주도 종교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이 운동의 성격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다. 당시 제주도는 1901년 이재수의 난을 통해 서양 세력에 대한 배척의식이 상당히 자리 잡았으며, 한일합방 이후 일제의 식민지 침탈에 대한 저항의식도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재수의 난 이후에도 천주교는 포교활동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1903년에는 개신교의 포교도 시작되었다. 계속되는 서양 종교의 포교활동과 일제의 침탈은 제주사람들에게 외부의 힘(External power)으로 인식되게 되었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내부의 힘을 모색하게 되었다<sup>8)</sup>.

8) 외부의 힘에 대한 문화적 저항은 Comaroff(1985), Scott(1985) 등을 참고할 것.

한편, 선도교<sup>9)</sup>는 증산교의 일파로서 1910년대에 그 세가 급증하였다. 전라북도 정읍에 본부를 둔 선도교는 호남 지방에서 주로 포교활동을 하였고, 그 영향이 제주도까지 미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선도교가 주민들에게 널리 포교될 수 있었던 이유는 외부의 힘에 대한 내부의 저항이라는 구도와 맞았기 때문이다. 선도교는 유,불,선의 사상을 융합하여 전통적인 사상을 체계화하여 강조함으로써 양풍과 왜색을 강력히 비판하였다<sup>10)</sup>. 또한 천주교와 개신교, 서양인들을 배척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에 대한 저항의식도 강조하였다. 선도교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머리를 기르는 등 전통적인 복장도 고집하였다(조성운 2002 : 19 참고). 이러한 성격으로 선도교는 주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았고, 제주도에서도 1922년에 약 2만명의 교도가 생길 정도로 그 교세가 확장되었다.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 하원에서 선도교의 교세가 매우 컸다. 당시 마을에서 조금이라도 행세를 하는 사람은 대부분 선도교도였다고 한다. 특히 향교 출입을 하는 인사들이 선도교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나가서 행세를 하는 사람들'로 지칭되는 사람들<sup>11)</sup>로서 대정향교에 출입을 하면서 양풍과 왜색에 특히 비판적인

9) 선도교에 대한 명칭과 관련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다. 특히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 당시에는 보천교라는 명칭이 없던 때이고 당시에는 선도교라는 명칭만 있었다고 하며, 이것 때문에 무오년 항일운동을 보천교도의 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되었고, 따라서 무오년 항일운동에서 보천교 또는 선도교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주장되고 있다. 보천교라는 명칭이 무오년 이후에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증산교 일파의 종교 명칭은 여러 가지로 호칭되고 있었고, 민간에서는 '선두', '생교' 등으로 불리워지기도 하였다. 즉, 주민들은 선도교나 증산교, 그리고 보천교를 구분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천교라는 명칭이 후대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무오년 당시 선도교의 역할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선도교 및 증산교의 명칭과 관련된 문제는 조성운(2002)교수의 연구를 참고할 것.

10) 김연일은 중문, 안덕, 대정 일대에서 다음과 같은 설교를 하였다고 한다(강용삼, 이경수 1984:212)

“하늘의 뜻을 모르는 자가 오늘에 날뛰고 있다.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라 했거늘 머리는 왜 짧게 깎고 손톱 발톱은 왜 깎느냐. 양풍에 물들고 왜색에 물드는 날 모든 백성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보천교를 믿으면 장래의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

11) 하원사람들은 이들을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행세를 하였던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유학이 전통문화를 강조하고 보수적이었음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선도교에 적극 호응하였음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이다. 인근의 월평마을에서도 유력한 인사들이 선도교에 적극 가담하였다. 김봉록, 강성진, 김봉인, 김무석 등이 그런 인물들로서 이들 중 강성진은 전 재산을 선도교에 헌납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하원 마을에서 선도교가 상당한 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하원 사람 중에 '방주' 직책을 가진 사람도 있었다는 데서도 드러난다.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기는 하나 강응규는 증산교의 방주로서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마을 사람들은 방주 직책이 매우 높은 고위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하원마을에서 이런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점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하원에서는 선도교에 입문한 뒤 모든 재산을 교단에 헌납하고 김제의 본부에 가서 살다가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일제시대에 김제에 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하다가 해방 이후 국가가 증산교 계열을 금지하자 마을로 돌아왔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서 보면 무오년을 전후한 시기 뿐 아니라 일제시대 전 기간 동안 하원에서는 선도교의 교세가 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원사람들 역시 선도교를 믿으면 재산을 많이 헌납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하원마을사람들 중에는 사상적으로는 선도교와 통해도 재산을 헌납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선도교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역으로 재산을 헌납할 수 없어서 선도교에 적극 가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선도교는 유학을 한 식자층들이 주도하였으며 이들은 여론을 주도하거나 행동에서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마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즉, 전통적으로 양반마을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학과 유학에 열심이었던 하원마을은 왜색과 양풍의 배격이라는 이념 아래에서 선도교와 같은 입장에 있을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선도교의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선도교에 투신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선도교 및 보천교에 대한 하원사람들의 인식은 많이 변화되었다. 외세에 대한 배격, 민중에 대한 강력한 전파력, 후천개벽과 같은 신비적 요소의 강조, 과도한 재물 헌납 등을 이유로 일제는 보천교를 탄압하였고, 실제 마을사람들도 재산을 헌납하고 보천교에 귀의한 후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경험하면서

보천교에 대한 인식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현재에도 하원사람들은 선도교와 보천교를 폐가망신 시키는 종교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천교에 귀의하여 정음을 다녀온 사람들이 폐가망신하였다는 것을 보천교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천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인식은 1989년 하원에서 일어난 대순진리회 연수원 건립 반대운동<sup>12)</sup>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이 이 항일운동의 핵심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할 여지가 있다. 하원사람들은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쳐 이 항일운동에 주민들을 가담시켰던 사람들 중에 정작 검찰에 송치되거나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인근의 월평마을에서도 마찬가지로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월평마을의 경우 김봉록, 강성진, 김봉인 등은 매우 열렬한 선도교였으며 무오년 항일운동에도 적극 가담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 특히, 강성진의 경우 전 재산을 헌납할 정도로 선도교에 적극적이었으나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봉록은 '선도교 대장'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에도 적극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그는 사건 이후 도피하여 검찰 조사에서 배제되었고 대신 그의 막내 동생인 김성숙<sup>13)</sup>이 징역 1년형을 받았다.

하원사람 중에 무오년 항일운동에 가담하였다가 불기소 처분된 현재천이란 사

12) 이 사건은 1989년 9월 8일부터 11월 27일 사이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원마을 안에 대순진리회 연수원을 건립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를 반대하여 철회시킨 사건이다. 하원주민들은 대순진리회가 선도교 및 보천교의 후신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대순진리회는 전신인 선도교 및 보천교와 마찬가지로 사이비 종교로서 흑세무민하고 주민을 폐가망신시킬 것이라는 점이 실질적인 반대 이유였다. 하원사람들은 대순진리회가 보천교와 마찬가지로 재산 헌납을 강요할 것이며, 이는 마을의 질서를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대운동 기간 중에는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포교원 지하에 남녀가 혼숙하면서 음행이 자행된다는 소문도 돌아 대순진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크게 나타내었다. 결국 건설 시공사인 세기건설이 시공을 포기하고 대순진리회가 건축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하원사람들이 선도교와 보천교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였다.

13) 김성숙은 형사사건부나 수형자 명부에는 김성수로 나오고 있다. 김성수란 인물은 당시 월평에는 없던 인물이며,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바로 김성숙일 것으로 판단된다.

람이 있다. 그는 당시 마을 일을 보는 두 명의 하인 중 한 명이었다. 무오년 항일운동 이후 일경은 주모자와 적극 가담자를 찾기 위해 마을에 들어와 당시 이장 집에서 주민들을 취조하였다고 한다<sup>14)</sup>. 당시 이장은 면장을 지낸 김우중 씨가 맡고 있었다. 일경은 마을 일을 보던 하인을 집중 취조하였는데, 김씨 성을 가진 하인은 끝까지 가담자를 발설하지 않았으나 현재천은 취조와 매를 이기지 못하고 한 명씩 가담자를 발설하였다. 그는 마을 사정과 마을 내 권력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 가담자 중 유력 인사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아 형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주로 거론하였다고 한다. 그 결과 적극 가담자 중에서 빠진 사람들이 생기고, 오히려 단순 가담자들이 많이 검찰에 송치되어 하원마을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마을에 비해 낮은 형을 받게 되었다. 이 발설에 대한 대가로 현재천은 불기소 처분되었지만, 마을에 살지 못하고 추방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선도교도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방동화와 같은 불교 승려들도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소한 하원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선도교에 적극적으로 있던 사람들이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하원의 가담자가 선도교 중심이었다는 점 때문에 이 항일운동을 선도교의 항일운동이라고 성격 규정할 수는 없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선도교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선도교의 교리나 사상이 항일적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외세와 일제의 침탈에 저항하고자 하던 사람들이 선도교의 메시지에 호응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즉, 당시에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전통적인 사상과 풍습을 지키고자 하는 현실적 목적이 종교적인 믿음체계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오히려 하원, 도순 월평, 중문 일대의 민중들이 현실의 모순과 질곡을 극복하기 위해 선도교의 천년왕국적, 종말론적인 종교 사상에 적극 호응하였고, 이 종말론적 사상이 폭력적 저항운동으로 표

14) 법정사 항일운동 주모자를 발색하고 그 과정을 취조하는 곳이 하원이었다는 것은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하원마을이 가장 중심이었음을 나타낸다. 목포에서 온 경찰들은 하원을 거점으로 하여 몇 달 동안 수사본부를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민폐를 끼치기도 하였다. 목포에서 온 경찰 중에는 일본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통역을 두고 취조를 하였다고 한다.

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 5. 맺음말

하원마을에 대한 현지연구를 통해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이들의 인식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이 항일운동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었다. 하원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법정사 항일운동은 지금까지의 연구와는 몇 가지 점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첫째는 이 항일운동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 외에도 이 항일운동에 적극 가담하고 운동을 주도한 계층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검찰에 송치된 사람들은 오히려 소극적 가담자였으며, 적극 가담자들은 마을의 유력 인사들이어서 오히려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법정사 항일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공식적 기록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가담자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 항일운동의 주도 세력이 구성되어 있었고 주민들의 호응과 참여도 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정사 항일운동은 소수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문 일대에서 지역의 유력 인사들의 주도에 의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유교와 선도교 사이의 관계이다. 당시 선도교는 중문 일대에서 상당한 교세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종교가 외세와 일제의 침탈에 대항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학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선도에 열심이던' 사람들은 대부분 대정 향교에 출입하면서 유학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유학이 가진 전통문화 지향적인 성향과 외세에 배격하는 메시지를 지닌 선도교는 서로 호응관계에 있을 수 있었다. 법정사 하일운동에 중문 일대의 민중들이 많이 참여하게 된 것도 지역 내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유학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세 번째는 이 운동의 주도세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다. 하원사람들은 법정사 항일운동이 법정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불교계의 항

일운동이란 주장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절간에서 스님들이 뭐 한 거라니까 기분이 좋지 않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데..'라면서 이 항일운동을 불교계와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이들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 김연일이 스님이란 사실은 강하게 부정하였다. 또 다른 핵심인물인 방동화에 대해서는 그가 지역에서 '방하룡'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방 처사'라고도 했다고 하면서, 그가 나중에 원만사 주지를 지낸 스님이란 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김연일에 대해서는 법정사에 기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독립운동가나 도사로 인식할 뿐 스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하원사람들의 이러한 인식들을 종합하면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불교와 선도교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고 중문 지역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한 항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중문 일대에서 이 항일운동에 광범위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김연일이 주창한 메시지가 주민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불무황제의 출현과 국권회복, 그리고 일본인의 축출로 요약될 수 있는 그의 메시지는 민중들의 염원을 담은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법정사 항일운동은 전형적으로 종교운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현실의 질곡과 모순을 해결할 실제적 수단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종교를 통해 그런 모순과 질곡을 해결하고자 하는 종교운동은 절대자에게만 의존하면서 현실의 권력과 권위에 과감하게 도전함으로써 폭력적인 저항운동을 촉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은 비록 제주도 산남 지방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그 의의는 결코 적지 않다. 이 운동은 폭력적인 성격을 가짐으로써 기미년 독립운동의 성격을 향도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김정인 2002),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주도하고 기층민중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함으로써 민중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용삼·이경수, 1984 대하실록 제주백년, 태광문화사
- 김정인, 2002 “법정사 항일운동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사)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 김창민, 2002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사)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 박찬식, 2002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사)제주학회 특별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제주학회
- 안후상, 1993 “보천교 운동 연구”,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후상, 1995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무장봉기 연구”, 중문청년회의소창립20주년, 해방 50주년 학술토론회 자료집
- 임혜봉, 1995 “제주도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중문청년회의소창립20주년, 해방 50주년 학술토론회 자료집
- 조성윤, 2002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무오년 법정사 항일운동의 성격, (사)제주학회 특별 학술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제주학회
- 하원마을회, 1999 하원향토지, 하원마을회
- Bourguet, M-N, Valensi, L. & Wachtel, N.(eds), 1990 Between Memory and History, Harwood academic publishers
- Comaroff, Jean, 1985 Body of Power, Spirit of Resistance, The Univ. of Chicago Press
- Scott, James, 1985 Weapons of the Weak : Everyday Forms of Peasant Resistance, Yale Univ. Press